

최적의 날씨·최고의 코스, 모든 것이 좋았다

〈장용준〉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 이번엔 음주운전 사고 물의

운전자 바뀌치기 의혹까지 불거져
과거엔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전력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19)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뀌치기' 등 의혹으로 대중의 비난에 직면했다. 이미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의혹으로 방송프로그램에서 퇴출되는 등 논란을 겪기도 했다.



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노엘은 7일 오전 2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0.08%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노엘과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경상을 입었고, 경찰은 사고 당일 조사를 마치고 노엘을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추측 이후 그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데다 노엘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며 합의를 시도했고,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제3의 인물이 운전한 것처럼 말해 '운전자 바뀌치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노엘은 앞서 2017년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고등래퍼' 출연 당시 SNS를 통해 조진 만남을 제안하는 등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장 의원은 당시 바른정당 대변인과 부산시당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노엘은 이후 논란이 잠잠해지자 지난해 래퍼 겸 가수 스윙스가 이끄는 인디고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다. 팬들은 "활동 중단이 아닌 연예계에서 은퇴하라"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이영연 기자 annjyo@donga.com



2019공주백제마라톤이 8일 '백제의 고도' 충남 공주에서 8000여명의 건각들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펼쳐졌다. 1 '마라톤 입문 2년차' 이종현 씨가 폴코스 남자부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가운데 2 20·30대 젊은 마라토너들은 화려한 복장으로 눈길을 끌었다. 3 휠체어에 탑승한 이들과 이를 힘차게 미는 아빠의 위대한 도전 역시 많은 갈채를 받았다. 4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주간(가운데)이 남자 폴코스 시상식에서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30 리빙맨 완주 인증샷 추억 공유 김정섭 공주시장, 10km 부문 출전 남자부 우승 이종현 씨 "런저니 욕심" 여자부 권이정숙 씨 "스트레스 아웃"



태풍 '링링'이 지나간 '백제의 고도' 충남 공주에서 가을철 마라톤 축제가 열렸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마스터스 마라톤대회로 손꼽히는 2019공주백제마라톤(공주시·동아일보·스포츠동아 공동 주최)이 8일 8000여명의 건각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지난해 대비 참가자가 2500여명이 늘어났다. 출발을 앞두고 대지를 촉촉이 적신 비와 따듯한 햇볕을 가린 구름으로 달리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졌다. 화려한 패션으로 무장한 20·30대 젊은 참가자들이

순위	이름	기록
1	이종현	2시간39분55초
2	박창하	2시간46분48초
3	송재영	2시간48분17초

대거 눈에 띄었고, 이들은 42.195km를 완주한 뒤 여전히 유쾌한 모습과 밝은 표정으로 공주종합운동장에서 '인증 샷'을 찍으며 추억을 공유했다. 10km 부문에 나선 김정섭 공주시장도 참가자들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아일보 3대 마라톤대회인 서울국제마라톤(3월 17일), 공주백제마라톤, 경주국제마라톤(10월 20일)을 완주한 동호인들에게 '런 저니(Run Journey-달리기 여행) 기념메달을 증정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700년 백제의 왕도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역시 코스부터 남달랐다. 금강과 계룡산을 따라 달리는 청정 코스는 백제큰길~무령왕릉(송산리 고분군)~마곡사~공



순위	이름	기록
1	이정숙	3시간19분36초
2	곽도원	3시간22분25초
3	이혜수	3시간39분48초

산성으로 이어져 참가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폴코스 남자부 우승자는 이종현 씨(27·한국전력기술)가 차지했다. 지난해 참여한 한 마라톤대회에서 개인 첫 폴코스 우승을 한 그는 단숨에 마스터스 마라톤 강자로 떠올랐다. 2017년 지인의 권유로 마라톤에 입문한 이 씨는 3월 서울국제마라톤 마스터스 우승자인 송재영(29), 공주백제마라톤 3연패에 도전한 박창하(40) 씨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송 씨는 3위, 박 씨가 2위에 올랐다. 이 씨는 "다음달 경주국제마라톤

에도 참여한다. 개인최고기록(2시간32분 8초)을 깨고 싶다. 우승을 하며 '런 저니' 메달까지 받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폴코스 여자부는 서울국제마라톤에서 7회 우승한 이정숙 씨(54)가 2년 만에 다시 정상에 섰다. 그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완주가 목표였는데 1등을 해서 기분이 좋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해 힘들지만 계속 달린다"며 활짝 웃었다.

이날 대회에는 김시장을 비롯해 고준근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도 정진석 국회의원, 박병수 공주시의회 의장, 김동일·최훈 충남도의회 의원, 원성수 공주대 총장,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태풍피해 현장 시찰로 참석하지 않았다.

공주 | 이원주·김배중 동아일보 기자 lakeoff@donga.com

주최 : 공주시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후원 : 충청남도 협찬 : new balance

동행보너스! **10만원**까지!

만 19세 미만은 NO!

건설구매 **10%할인**

19 22 30 34 39 44 36

1등 총 당첨금 1,415,946,724 원

Lotto 6/45 875 회 당첨번호 (추천일: 2019년 9월 7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9 22 30 34 39 44	36

1등 총 당첨금 1,415,946,724 원

*1등 총 당첨금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금의 70%입니다. 2등~5등 당첨금도 70%입니다. 1등 당첨금의 30%는 2등~5등에 배분됩니다.

등위 및 당첨개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14	1,415,946,724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0%)
2등 5개 숫자 일치 + 2등 보너스 일치	33	100,117,446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 일치	2,278	1,450,341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 일치	105,071	50,000 원 (90,000 원)
5등 3개 숫자 일치	1,726,617	5,000 원 (5,000 원)

*당첨금의 1%는 1등에 배분됩니다. (내부 공개 전)

• 동행보너스: 지역별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해당 회차 지급제일로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주의 사항
• 복권은 만일 1회 1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복권을 구매할 경우 연령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 지난 회차 구매는 중복의 배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행보너스 번호 080-800-0500 www.dhlottery.co.kr

이해인 金·이시형 銀...한국남녀피겨 샷별 탄생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3차대회

이해인 여자 싱글 총점 197.63점 획득
2012년 김해진 이후 7년만에 금 사냥
남자 싱글 이시형 개인최고 성적 입상



이해인 이시형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의 차세대 주자들이 주니어 그랑프리대회에서 동반 입상하며 앞날을 밝혔다. 이해인(14·한강중)은 7일(한국시간)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2019~2020시즌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3차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0.13점, 예술점수(PCS) 60.57점으로 합계 130.70점을 획득, 쇼트프로그램의 66.93점을 더한 총점 197.63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해인은 2012년 슬로베니아 주니어 그랑프리 5차대회에서 우승한 김해진 이후 7년만에 이 대회

여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선물했다. 쇼트프로그램에선 다소 아쉬움을 남겼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7개의 점프를 모두 깔끔하게 성공하는 클린 연기를 펼쳤다. 스텝과 스핀 연기도 흠 잡을 데 없었다. 2018~2019시즌 김예림(16·수리고)이 3차대회에서 기록한 프리스케이팅 130.26점, 5차대회의 총점 196.34점을 넘어 한국 여자 피겨 주니어 역대 최고 점도 경신했다.

남자 싱글의 이시형(19·고려대)도 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프리스케이팅에서 141.01점을 획득, 쇼트프로그램의 77.30점을 더한 총점 218.31점으로 안드레이 모잘레프(러시아·223.72점)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이시형은 2016~2017시즌 러시아 사란스크 4차대회에서 작성한 개인 최고 성적(8위)을 뛰어넘어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 첫 메달을 따냈다.

7번째 출전만에 달성한 쾌거다. 두 번째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에서 착지가 흔들리긴 했지만, 나머지 연기는 문제없이 해냈다. 연기 후반부의 더블 악셀~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 러츠, 더블 악셀~싱글 오일러~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도 실수 없이 해냈다.

우승을 차지한 이해인은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쇼트프로그램에서 준비했던 것을 모두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웠다"면서도 "프리스케이팅에서 만회한 것 같아 행복하다. 남은 6차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